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집회) ▶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의 모순에서 인간은 완전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모순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선택의 책임에서 볼 때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딤후 1:9).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리 먼저 하나님께서 손에 쓴 것을 언급하고 있다(롬 8:29-30).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고백한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니(엡 2:8-9).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키우려 한다. 구원의 문제를 떠나 성공과 행복의 도가니로 교인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우상들을 빚어가고 있다(딤후 3:5). 구원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외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심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은 변론을 좋아하고 인간들의 모임(정치, 가족의 가문, 학교 교육, 선한 윤리의 법 등)에 능통하는 것에 정력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현실의 인간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은 아닌가(딤후 3:9).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또한 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선택을 말하고 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딤후 16:30-31, 요 3:36). 믿음은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중간은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요 1:12). 인간의 책임을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다(요 1:10-11). 인간 자유의지의 경험에 참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간 자유의지의 책임과 믿음의 결정으로 선택받음을 성경에서 함께 나란히 나타내고 있다(요 6:37). 두 가지 진리가 함께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요 6:44, 65).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하신다(요 6:29). 시간관을 넘어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시는 절대적인 책임을 언급하신다. 내게 오라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를 먹었으며 죽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다(요 6:40, 47-48).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묶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간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이 응답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값없이 주어졌다.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은혜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요 또한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다. 구원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놀라운 주권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억지로 믿도록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신다(요 14:14-15, 5:1).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거나 부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강제로 구원하셨다면 구원의 신물이 아물담고 귀한 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절 5:18)

오늘(3일), 맥추 감사주일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레 23:16).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맡기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부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맥추 감사절을 맞는 우리도 지금까지 자비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롬 6:6). 왜냐하면 참 감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사 2:3).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기에 드리는 감사는 보통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고전 1:4).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시켜 여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십자가 증인들로 뜨거워질 여름!

2005년 여름 계절학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년 133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3개 교회학교에서 일제히 여름 계절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여름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바다부 · 장년2부 · 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 성도님들의 사명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여름 계절학교 일정표 ◇

부서명	기간	장소	부서명	기간	장소
영아부	7월 20일(수)~7월 21일(목)	영아부실	중등2부	7월 25일(월)~7월 26일(화)	충현교회
유아부	7월 20일(수)~7월 21일(목)	유아부실	중등3부	7월 25일(월)~7월 26일(화)	충현교회
유치부	7월 20일(수)~7월 21일(목)	유치부실	고등부	8월 14일(일)~8월 15일(월)	충현기도원
유년부	7월 20일(수)~7월 21일(목)	1교 3층	대학부	7월 5일(화)~7월 7일(목)	충현기도원
초등부	7월 20일(수)~7월 21일(목)	1교 4층	장년1부	7월 16일(토)~7월 17일(일)	충현교회
소년부	7월 20일(수)~7월 21일(목)	1교 5층	장년2부	7월 4일(월)~7월 5일(화)	충현기도원
중등1부	7월 25일(월)~7월 26일(화)	충현교회	예바다부	7월 4일(월)~7월 5일(화)	2교 1층

오늘(3일)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오후 6:10~7:00)	길월리울
제8차 CMTC 훈련 (첫째 날)	제2강	충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전도 특강	(오후 7:10~7:40) (오후 7:40~8:10)	길월리울 길월리울

*오늘(3일), 제5차 성찬식이 1부에서 5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GOD KNOWS EVERYTHING ABOUT YOU

*⁽¹⁾ For the choir director. A Psalm of David. O LORD, Thou hast searched me and known me.
⁽²⁾ Thou dost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up; Thou dost understand my thought
 from afar. ⁽³⁾ Thou dost scrutinize my path and my lying down, And art intimately acquainted
 with all my ways. ... (Psalm 139: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God really loves this world, so much so that whoever comes to His Son, Jesus Christ, in faith will receive all His love and become His child. What loving parent does not care for their child? Your heavenly Father takes the time to examine you because He cares about you. He gives you all the love because He knows what you need.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because He has done His research,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You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up; You scrutinize my path and my lying down, and are intimately acquainted with all my ways. Even before there is a word on my tongue, behold, O Lord, You know it all" (vv. 1-4). God truly knows every-single-little thing about you, "You have enclosed me behind and before, and laid Your hand upon m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t is too high, I cannot attain to it" (vv. 5-6). His knowledge of all things surpasses human understanding, but what we can comprehend and appreciate are the results.

God's omniscience means He knows the possibilities you have. Psalm 139:15-16 says, "My frame was not hidden from You, when I was made in secret, and skillfully wrought in the depths of the earth; Your eyes have seen my unformed substance; and in Your book were all written the days that were ordained for me, when as yet there was not one of them." This affirms God's prior knowledge and plan of everything in your life. He knows all secrets. He knows that when you deny yourself that you will be born again, and that He will make you His instrument. As such, He knows what kind of things you can handle. When Jesus called Peter at the Sea of Galilee, He said,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Mk 1:17) Peter caught fish for a living, now God was enabling him to catch men. What possibilities did Peter have? In Matthew 16:18 Jesus says,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Peter could have never imagined himself in this way. Perhaps you have no idea right now what your future holds, and you feel overwhelmed, tired, and lay down depressed. Do not do that! If you deny yourself, God will search you and make you into something you cannot even anticipate. Jesus told Peter,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and you, when once you have turned again, strengthen your brothers" (Lk. 22:32). Jesus knew Peter was going to deny Him three times; He also knew Peter's future, which is why He prayed for God to strengthen his faith. The outcome was tremendous. On the day of Pentecost, Peter preached,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For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as many as the Lord our God will call to Himself. And with many other words he solemnly testified and kept on exhorting them, saying, 'Be saved from this perverse generation!'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ts. 2:38-41). Could you have ever guessed such an outcome? Who would think that an uneducated

fisherman had the possibility to save thousands! Could you have imagined the possibilities that came from Esther, Joseph, or David's lives? Proverbs 3:5-6 say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Do not trust your own ideas and thoughts, and do not question God with your why's and how comes, just trust Him. He knows everything.

God's omniscience means He knows your limitations. Every soul, every human being is different. Every one has different talents and limits. God knows you. He knows what you can and cannot do. He knows your weaknesses and strengths. 1 Corinthians 10:13 says,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provide the way of escape also,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ndure it." Do you believe it? Do you trust God? Your faith in God can never fail. All you have to do is to follow Him because He knows which way to direct you. He will never lead you down a path that you cannot walk. Even though things may seem difficult and near impossible at times, He will help you. He knows your limitations!

God's omniscience means He knows what you need. You cannot understand everything that is going on in your life. You cannot figure out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your life. 1 Corinthians 13:12 says, "For now we see in a mirror dim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but then I will know fully just as I also have been fully known." Right now, your eyes have a dim focus and your faith is weak. You do not even know what to ask from God, "So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Mt. 6:8). God knows exactly what you need. Romans 8:26-27 says, "In the same way the Spirit also helps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how to pray as we should,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and He who searches the hearts knows what the mind of the Spirit is, because He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Paul earnestly asked Timothy,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2 Tim. 4:1-2). Whether you have time or not, you have to preach that God loves the world and gave His only Son, so that whoever accepts, confesses, and believes He will take the time to research and make them into a new creature with wonderful possibilities whose limitations and needs He completely provides for.

God loves you more than you can imagine, and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He has taken care of everything that concerns you, so that all you have to do is deny yourself and follow Him. As His child, He comforts and cares for you beyond measure. His plan for your life exceeds the possibilities you can even imagine. So, are you experiencing the joy and peace that comes from trusting an omniscience God? Are you singing praises to Him in the midst of your tribulations and preaching the word during these hard times? 🙏

다음 주일 설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1-6)



김성환 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전폭적인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세심히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랑을 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1-4절).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관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놀라이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5-6절).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39:15,16은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자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자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스런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 베드로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주셨습니다. 대체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을까요? 마태복음 16:18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마 베드로는 한번도 자신에 대한 이런 상상을 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 당장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실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면 우리를 살도지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버려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때 역한 새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38-41).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한날 아무런 베드로가 수천 명을 구원하더니 말입니다! 또한, 예수나 야벳, 다윗

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까? 잠언 3:5,6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르듯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가진 능력과 한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0:13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모든 일들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고의 불가능해 보일 때도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12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막 6:9).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26,27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경하며 정경하며 권하라”(딤후 4:1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님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믿으면, 시간을 쏙 빼 그를 살펴 보시고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어떤 한계를 지녔던 어떤 것이 필요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온전히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없는 위로와 무한한 인내로 돌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까? **■**

장로 칼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10교구

“민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딤후 6:12a)



최희훈 (10교구장)

10교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맡겨진 모든 일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10교구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거리상으로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주님과 늘 가까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구 내에는 299세대와 702명의 성도들이 있고 8개 지역, 35개의 구역, 8개의 남성구역과 7개의 전도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역자, 장로,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등 많은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wig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구는 지역장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교역자, 권사, 구역장과 협력하여 심방을 통해 병든 자, 낙심한 영혼,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상황을 넘어서서 우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며 말씀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민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딤후 6:12a)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헛된 물질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민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민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교회의 5대 목표인 선교와 전도(막 16:15)에 힘쓰기 위하여 10개 선교팀을 조직하여 연초부터 팀 양성 훈련과 CMTC 훈련, 언어 훈련 등을 준비하여 이미 7개 팀은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쳤고 앞으로 파송될 3개 팀은 힘을 다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에는 남녀 전도회가 중심이 되어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구 전체가 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구 모임 시에는 각 구역별로 준비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는 교구 모임 시 잘 나오지 못하던 성도들과 어린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찬송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친교하고 있고, 모이기를 힘써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10교구는 1년 성경 1독과 성경통신에 힘써, 말씀을 알되 분명히 알아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 가운데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민음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민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민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교구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민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7b)

♥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온 게 감사하고요,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양해수-유년부)

♥ “주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학교생활도 잘 하고 무엇보다 용례에 선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민상훈-중등 3부)

♥ 이 세상의 영광보다도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김민우-대학부)

♥ 정신없이 보낸 시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김성은-중등1부 교사)

♥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는데 기쁘고 재미있 감사합니다. (지현경-초등부)

♥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먼 거리지만 통학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예쁜찬양대와 동료를 섬길 수 있도록 계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해-고등부)

♥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를 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 찬!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원진-소년부)

♥ 학교 생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중등2부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간다는 것이 제게 도전이고 수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주영-중등2부 교사)

♥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감사해요. (김유나-유치부)

♥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선교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양기수 안수집사)

♥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대학부)

♥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배찬희-대학부)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향화를 보라. 주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기를 하로며... 언제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어서 감사합니다. (이해주 권사)

♥ 하나님의 불드심으로 이 세상이 운행되듯이 아버지의 불드심이 있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예스터-청년부)

제2차 정치기 훈련을 마치고

크신 구원의 은총

이번 정치기 훈련은 저에게 무척이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를 텐데!' 하며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감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예쁘게 꾸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너임에르데(외선부)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도 또한 저들과 다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나의 교만과 자존심, 그리고 나를 위한 생각으로 꽂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위로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 여러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7).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요엘(외선부)

십자가를 지는 삶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마음에 남는 생각은 '왜 당신은 이제까지 살아 남았습니까?'라는 물음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까?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의 신실하고 성한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왜 나같은 죄인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대학부 조장으로 학교에서는 선교 단체에서 봉사했던 나!!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썼던 나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지는 못하고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바로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하니까'라는 의무감에 나 자신은 점점 지쳐만 갔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는 찬양처럼 내 마음 가운데 참 회개가 있기를 기도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확실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주종 같은 나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삶은 옮겨졌기 때문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 계획과 목적은 내 작은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 영혼을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전 2:4-5).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과 심판의 때에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길 원한다. 나 자신이 살아 남았다고 자랑하지 나 안도하면서 가만히 머물지 말고 움직이길 소망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며 살기를 소망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살기를 원한다.

황세연 (대학부)

"내가 홀로 있는지라"(렐 9:8)

무엇 때문에 나를 남겨두셨을까?

은혜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로 준비한 이번 정치기 훈련은 큰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었다.

10년 전 일본 고베 대지진(당시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때 6,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엄청난고도 참혹한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머릿털 한 가닥 손상됨이 없이 무사히 살아 남았던 나와 우리 가족들, 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갔고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옆집 아주머니 가족이 폭삭 주저앉은 집에 깔려 죽은 처참한 광경을 보며 우리는 할 말을 잊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가족임에 감사하며 사는 것에 만족했던 우리들.

대재난 속에서도 살아 남은 나와 우리 가족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라서?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저 착하게 살아온 것 때문에? 아니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코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말씀을 통해 나는 교만했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크신 사랑을 입을 열어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정치기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영혼 구하는 일과 복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게을렀던 나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 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 순간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는 자아 십만 날에 주님의 보혈의 표적으로 인해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곁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다.

김학경 (집사, 4교구)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나를 지나친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다 에스겔이 보았던 무사무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른가? 아니다. 그들과 나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다는 것! 그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다는 것뿐이다.

내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하신다. "저들에게 가서 나의 진노의 칼을 피할 길을 알려 주어라! 나의 맹렬한 노가 저들을 죽이려 한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저들 중 하나도 죽지 않길 바란다. 저들에게 속히 가서 이 사실을 알려 주어라! 진심으로 나는 저들이 나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이 길을 먼저 보였으니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길을 저들에게도 보여 주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내가 사랑한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말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아 나를 가려라" 하는 그 날에 기쁨으로 하늘을 올라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원정 (대학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는 생각 속에서 맴돌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 친구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러 주시며 는 지켜 주신 그 주님이 사역지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불러 주시는 그분의 그 따스한 음성을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는 그 곳에서도 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은혜였으며,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는 영혼들의 모습은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간절히 불러 주시는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 본 선교였습니다. 모두들 중년된 삶을 살아가고 선교를 가는 데 난 이방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할까? 싶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저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외국에 근무하는 남편한테 가서 몇 달씩 있다 온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는 빠지고, 결혼한 것 같은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자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 같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아난,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만 살아 계심을 알리기 위한 선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말로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맑은 눈동자와 무언의 교통은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자고 목소리 높여 부르는 아내의 부름에 급히 달려오는 그 남편과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그곳에 당신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팀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더운 그 날씨가 아랑곳 없이 땀띠가 등에 잔뜩 나고 얼굴엔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숙소에 있는 것보다 사역지에 있는 것을 더 행복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김경희(집사, 2교구)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감사가 심하여 전도지를 가져갈 수 없어서 대신 언어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선교지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열심히 언어훈련을 받았고, 서울에서 그 나라 사람에게서 검증까지 받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란 말인가? 정말 참담한 실정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나의 자만과 경험을 앞세워 교만한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주님보다 내가 앞섰고,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던 그들이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고,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반개를 동반한 비가 자주 쏟아졌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 비가 그치고 또 그 곳을 떠나면 비가 오는 등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물러가길 바라며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생각하니 찬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어 이 땅의 이방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들어 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평기(집사, 3교구)

마귀군에서부터 시작된 운송

우리의 첫 사역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만 나면 선교의 문을 열어 달라고 매달려 기도했다. 조심스럽게 정탐을 계속해 나가면서 점차 사역의 환경이 열리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팀이 도착한 마을마다 젊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해 들었고 찬송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알지 못했던 그들은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지금도 그 때 그 청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다음 날 우리는 어느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스물다섯 명의 어린이가 음악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동안 여러 마을을 다녔 보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웬지 기가 죽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피쳐 못할 사정으로 부모를 잃고 그 곳으로 온 아이들, 배고픔과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장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귀군에서 태어났んだ. 너는 왜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해 미래에 역사하실 것을 비취 주셨다. 순간 나는 나의 생각이 옳지 못함을 깨달았다. 내 잘못을 고백했고 즉시로 나는 새 힘을 얻었다. 순간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자 내 마음 속에 소망이 생겼다. 나도 이 아이들을 위해 살 순 없을까? 어떤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 수 있겠다던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의 모든 자비를 들여다보니 한없이 슬프기만 하였다. 내 이기심과 추함과 욕심, 개인적 야망이 나를 짓눌러 곤고하게 하는데 어떻게 빛 된 삶을 살아가 수가 있단 말인가? 내 힘으로 어렵도 없는 것이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어렵도 없다.

'주여!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이끄소서.'

김연정(집사, 5교구)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6월 27일(월) - 7월 5일(화)	대학부(18)	김낙홍	6월 29일(수) - 7월 8일(금)	14교구 2지역	강민수
6월 27일(월) - 7월 6일(수)	9교구 6지역	홍성욱	6월 29일(수) - 7월 9일(토)	18교구 1지역	정부초
6월 27일(월) - 7월 6일(수)	1교구 1지역	최세진	6월 29일(수) - 7월 9일(토)	대학부(19)	이승득
6월 29일(수) - 7월 9일(금)	대학부(20)	정성창	6월 30일(목) - 7월 9일(토)	17교구 6지역	김연경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6월 20일(월) - 6월 29일(수)	16교구 5지역	윤상철	6월 21일(화) - 6월 29일(수)	10교구 8지역	노태경
6월 20일(월) - 6월 29일(수)	16교구 6지역	윤명배	6월 23일(목) - 7월 1일(금)	6교구 2지역	김구식
6월 21일(화) - 6월 28일(수)	9교구 6지역	오영철	6월 23일(목) - 7월 1일(금)	6교구 7지역	문은식
6월 21일(화) - 6월 29일(수)	4교구 2지역	오순도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4일(월) - 7월 13일(수)	8교구 4지역	김중홍	7월 8일(금) - 7월 16일(토)	9교구 추가	이창희

* 선교 기도회가 매주(일요일 4:00~4:40) 감리리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교회 탐방 70 중등2부 선교팀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중등2부 선교팀원들은 열서너 살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선교에 나선다. 학생들이 가까이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땅으로 가길 마음 먹었다. 지금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박대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연성)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동상 교사)

선교지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잘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지영)

제가 전한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주영)
그들이 내 말을 잘 들어 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정예은)

선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할 때, 결심들이 된 것이 무엇이었나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아려가실까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제가 몹시 가고 싶어하니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이지영)
준비기간 중에 시험기간이 겹쳐서 걱정이 많았어요. (노주영)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연성)
회사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동상 교사)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은?

언어입니다. 정확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우리와 다른 문화와 풍습에 잘 적응하여 전도하고 싶어요. (이연성)
좋은 날씨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예은)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최지현, 정수민)

중학교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의 각오는?

우리는 말씀과 십자가 안에서 다 동역자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다녔습니다. (윤정성 팀장)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 했습니. 그러나 이제 표대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선교에 의미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최동상 교사)
교구에서도 섬김을 받으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장이 바뀌어서 학생들을 섬기게 한다는 신안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기회를 통해 더욱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적, 외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굳게 붙들 것입니다. (정주영 총무)

청소년들에게 박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항구 같은 시기이다. 그런데 이들은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으로 선교를 자원했다. 주님이 이들을 양에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좋은 소식을 택하였구나!" (눅 10:42)라고.

(편진실)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본 찬송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는 말씀에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늘 함께 하심을 찬양한다. 본 곡은 아더 루터(Arthur A. Luther, 1891-1960)가 작시 작곡하였으나 찬송의 작시 작곡의 동기가 배경에 관해서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도 알려진 것이 없다.

1절은 이 세상의 친구들은 비록 우리를 버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찬양한다.

후렴은 온 전지가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찬양한다.

2절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 때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 검은 구름과 광풍이 몰아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에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찬양한다.

3절은 우리 인생의 괴로움 일, 낙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아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수 있다. 이 능력의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중년의 성도가 되자.

(한양취회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77	이상현	1부	청년1부	장지현	1904	김학중	1부	청년1부	장지현	1931	최보배	16	청년1부	이종성	1958	박종신	19	대학부	이윤지
1878	전재현	1부	청년1부	임광숙	1905	김영애	7	청년2부	안광숙	1932	구옥희	7	청년2부	김영희	1959	조재현	19	외선부	임미경
1879	문순호	1부	고등부	김정순	1906	안원희	7	청년2부	김금희	1933	장광호	5	청년2부	김태희	1960	수 록	19	외선부	이명주
1880	홍수연	16	청년3부	문현성	1907	전종현	1부	청년1부	장지현	1934	김재영	19	대학부	정지현	1961	백지우	19	외선부	유경진
1881	김주주	1부	청년1부	장지현	1908	가 나	19	외선부	정종현	1935	이연희	13	고등부	정영희	1962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82	김주주	1부	대학부	김희동	1909	김기남	1	청년3부	전학희	1936	최이영	19	외선부	한정희	1963	정종현	14	청년1부	구옥희
1883	주병준	4	청년2부	박현숙	1910	김재희	19	중등부	박지현	1937	정영희	19	청년1부	이영희	1964	김지현	19	외선부	오지현
1884	최정현	4	청년2부	박현숙	1911	김재희	19	중등부	유진희	1938	박종준	18	청년2부	유종호	1965	박지현	19	대학부	정종현
1885	전진규	19	대학부	정영희	1912	이영숙	6	청년1부		1939	한영숙	2	청년1부	김재희	1966	이희진	1	소망부	
1886	김현희	19	대학부	김재희	1913	김지희	6	중등부		1940	정지희	4	청년3부	김재희	1967	김재희	19	청년1부	이영희
1887	윤병욱	19	청년1부	이영희	1914	조진미	19	대학부	정종현	1941	정지희	16	청년1부	한정희	1968	이희진	19	대학부	박지현
1888	한진희	19	고등부	박지현	1915	조진미	19	청년1부	김영희	1942	이영희	1	청년2부	이영희	1969	박지현	19	청년1부	김영희
1889	김지현	19	고등부	박지현	1916	정지현	11	청년1부	김재희	1943	한영숙	2	청년2부	이영희	1970	이희진	19	청년1부	유진희
1890	최정현	9	소망부	최정현	1917	한기수	19	중등부	김재희	1944	박지현	6	청년2부	이영희	1971	김영숙	1	청년2부	송준희
1891	김지현	13	청년1부	김영희	1918	정희	1	청년1부		1945	한정희	19	청년1부	이영희	1972	이희진	5	청년2부	김영희
1892	조진미	1	청년2부	최정현	1919	김기남	1	청년2부	김재희	1946	박지현	19	대학부	박지현	1973	최지현	10	청년1부	박지현
1893	정종현	5	청년2부	김영희	1920	한영숙	15	청년1부	전지현	1947	한영숙	19	청년1부	이영희	1974	박지현	19	대학부	고종호
1894	이희진	19	중등부	박지현	1921	최희	19	청년1부	김재희	1948	이영희	19	청년1부	김재희	1975	이희진	19	청년1부	김지현
1895	이영숙	2	청년2부	박지현	1922	정종현	19	청년1부	이영희	1949	한영숙	17	청년1부	유진희	1976	이희진	19	청년1부	정종현
1896	김지희	19	청년2부	박지현	1923	김지희	19	대학부	박지현	1950	김지희	19	대학부	박지현	1977	김지희	1	소망부	정종현
1897	김지희	19	청년1부	송준희	1924	안미희	6	청년1부	안지현	1951	이희진	16	청년2부	한정희	1978	이희진	12	청년2부	박지현
1898	정종현	19	청년1부	김지현	1925	유진희	19	대학부	이영희	1952	한정희	19	청년1부	박지현	1979	조진미	19	청년1부	이영희
1899	조진미	19	청년1부	김지현	1926	김지희	19	청년1부	김재희	1953	정종현	17	청년1부	김지현	1980	이희진	19	청년1부	이영희
1900	박지현	19	청년1부	유진희	1927	김지현	19	대학부	박지현	1954	조진미	19	청년2부	김재희	1981	김지현	19	대학부	이영희
1901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928	한영숙	19	고등부	이영희	1955	한영숙	6	청년2부	문종현	1982	이희진	2	청년2부	김지현
1902	도 이	19	외선부	나지현	1929	이희진	19	고등부	이영희	1956	김지현	19	대학부	유진희	1983	김지현	15	김지현	15
1903	김지현	3	청년2부	정종현	1930	나지현	19	중등부	이영희	1957	최지현	14	청년1부	한정희					

※ 교회회의의 한 가지이 되기를 위하여는 본분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대회
일시: 6월(수)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7월 안수집사 지회 월례회
일시: 3일(오늘), 15:00
장소: 1지회(교육관 501호)
2지회(교육관 507호)
3지회(영아부실)
4지회(교육관 508호)

별세

1. 박태임 타교신자 (한성회 집사

의 모친, 아상일 집사의 장모,
17교구 태평구역) / 6월 26일
별세, 6월 28일 장례

2. 백옥남 성도 (9교구 이문 구역)
/ 6월 27일 별세, 6월 29일 장례
3. 권완순 은퇴집사 (조용한 성도)
의 부친, 15교구 신대방2구역)
/ 6월 30일 별세, 7월 2일 장례

결혼

1. 오경환 군 (곡봉영 씨의 아들,
타교회)과 박순영 양 (백정수
성도, 이만성 권사의 딸, 18교
구) / 7월(목) 가족예식

◆전도회 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7월 3일(주일) ~ 7월 31일(주일)
대상 기간: 2005년 1월 ~ 6월
감사 장소: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시선교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첩

◆에버다버 여름수련회

일시: 7월 4일(월) ~ 7월 5일(화) 오후 8:00
장소: 제2교육관 1층 에버다버실

◆충현전도대 중동생의날

일시: 7월 6일(수) 오후 1:30
장소: 본당 112호
*충현전도대 수료생 전원 참석바랍니다.

◆단기교 팀장 훈련

기간: 6월 8일(수) ~ 7월 6일(수) 과정)
시간: 매주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소: 본당 112호
* 2005년도 팀장훈련은 마지막이오니
미참가하시는 이분 저우에 전원 수강
바랍니다.

직원모집

- 1.모임담당 겸비직 (약간명)
- 2.지 역 세례교인 (만 55세 이상)
- 3.재무서류 자비로사
주인등록등본
등장취급지서 (타교인)
- 4.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02-552-8200 (#403)

2005년도 하반기 장악성 신청

1. 선발대상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 ③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6월 26일(주일) ~ 7월 10일(주일)
3. 문의 및 신청장소: 교육관 ☎ 052-552-8200 (#472,473)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10(주일)
설교자/기도자	조규호/김영은	정성영/유명범	이재영/김성수	이경준/김기태	양재용/조윤준	이종대/홍순애	류병화/김연식

예배담당 안내 (7/6-7/10)

날짜	예배	찬 양	사회	기도	설 교
7/6	수요일	보이라 줄가을 우리집 (호산나 찬양대)	고광환	김경순	보혈의 능력 (히9:11-15) 장 훈목사
7/6	수요일 II	내 마음 정결케 하소서 (설교찬양대)	정성영	이종석	보혈의 능력 (히9:11-15) 장 훈목사
7/8	금요일	바울로전 감동경/소프라노 김승주/테너 이상주	안정원	김정란 목사	
7/10	주일 I	(예배 전 찬양)	이정훈	김진국	나의 모든 행위를 의하시오니 (시 139:14) 정성영 목사
7/10	주일 II	내 분향가는 길 외/소프라노 김희영 (영마누라 찬양대 솔로리스트)	최성규	안동현	나의 모든 행위를 의하시오니 (시 139:14) 김승철 목사
7/10	주일 III	희망게 가는 이그나코 외/테너 유종문 (한얼루아 찬양대 솔로리스트)	류병화	이덕목	나의 모든 행위를 의하시오니 (시 139:14) 김정란 목사
7/10	주일 IV	인내해신 구세주 외/알토 이상민 (아련 찬양대 솔로리스트)	하종현	함철주	나의 모든 행위를 의하시오니 (시 139:14) 정성민 목사
7/10	주일 V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외/트럼펫 이영훈 (고동부 오케스트라 악장)	윤수일	서영석	나의 모든 행위를 의하시오니 (시 139:14) 김정란 목사
7/10	주일찬양	별원 여성 찬양단 / 호산나 찬양대	김미원	정태동	저희 눈이 밝아져 (눅 24:30-35) 원관영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여유가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차회	오후 11:00	금요일차회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1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길 뒤풀리 홀
사 람 부	오전 11:00	복지센터 지하1층
예배다버	오전 9:00(학생)	오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나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11부	오전 11:00	아 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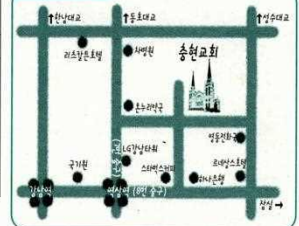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전 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7월 충현 기도회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새 삼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삼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4. 매일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23개 교회학교에서 진행될 여름 계절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삼자가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삼자가 복음을 확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삼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자)을 삼자가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교회 소식은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김의철	이훈	남순우	김영길	김종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최두길	이창호	차진호	김광남	이종석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안종욱	임두환	이갑재	전종훈	전종현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이정우	김단용	한승국	김영수	김기영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원종욱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영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최운재	이계인	박덕환	이태식	정태우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박용근	전명호	조종환	배순식	김영남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이철호	최지환	노영환	박철구	정정식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신상수	고재수	강정환	김영은	이덕목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정환현	김승국	함철주	윤연민	정현진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안현진	김진국	김영길	김승준	임창식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김원준	전학대	김진국	전계식	김영준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장승국	전노배	서영석	구재환	송두성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기인	류병화	김영준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여국진	안광진	나병영	정진호	김종욱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고광환	위진영	김미원	장 훈	임태원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이희식	최종철	최종현	안지현	정종진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이경준	이창수	김순우	윤수일	황진섭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정성영	이정훈	김태식	김성훈	류민우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주	윤원숙	한영준	김연식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홍순애	이수진	김말자	안태순	김경민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조옥자	강덕현	최문실	전은희	김영준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김장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민우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42교구
한성민	임태우			
42교구	42교구			
■ 찬양담당 강임구				
■ 전집회장자 김소연				
■ 선교 사 송요한				